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8강, 예레미야 2-3장, 결혼 비유, 하나님과 이스라엘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8과, 예레미야서 2-3장, 결혼 비유, 하나님과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수업의 초점은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한 아내를 고발하는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번 1장 과에서 우리는 그 구절이 단지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예레미야의 사역의 시작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책은 책 전체에 대한 프로그래밍 방식의 소개입니다. 열방을 향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는 심판과 구원의 사자이다. 그는 허물고 쌓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있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에 그의 말씀을 넣어 주셨다. 북쪽에서 오는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예레미야를 요새화된 도시의 늦성벽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 전반에 걸쳐 갈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장에는 예레미야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말하는 방법을 모른다.

예레미야는 “주 하나님, 당신은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나는 말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 다루어질 주제들은 1장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실제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을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책 전체를 통해 스스로 작용할 주제를 소개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분열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관계는 결혼과 같습니다. 언약은 결혼과 같아서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나머지 부분, 특히 30~33장에 나오는 희망의 메시지는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읽던 책의 종류와는 다릅니다.

Kindle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약이나 바울서신, 복음서를 읽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 모든 메시지와 함께 설명하는 이야기로 이해한다면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일이 저절로 풀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앤드류 쉬드(Andrew Sheed)가 우리에게 상기시켰듯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것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제시되고 예레미야의 삶과 시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나라의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음모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것은 무엇을 달성합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 전개되는 거의 줄거리를 상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불성실한 아내인 유다에 관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2장과 3장을 살펴보면서 이 구절은 많은 선지자들과 일반적인 구약의 시와 마찬가지로 매우 강력한 은유와 단어 이미지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단지 정보만 제공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정을 포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설교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빌로니아인들이 오고 있고 그들이 586년에 이곳에 올 것이라는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빌로니아인들이 오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식별조차 할 수 없는 고대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네 땅을 삼키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들은 사자와 이리와 표범과 같을 것이다. 이 모든 이미지가 우리에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2장에는 예레미야가 실제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비유적 표현과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비난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장을 읽으면서 나에게 눈에 띄는 몇 가지 주요 비유를 짚어보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중심 비유가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의 첫 열매와 같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 곧 추수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은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느니라

구약의 율법에서 수확의 첫 열매는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의 분깃이니라

그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해치거나 먹거나 없애려고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일로 인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몫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밝혀질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더럽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라들이 들어와 이스라엘을 황폐화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미지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추수의 첫 열매입니다.

2장 14절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2장 14절에는 수사학적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입니까? 그는 집에서 태어난 하인입니까? 그가 다른 나라들의 먹이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속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위치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속박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픈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 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장 21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를 약속의 땅에 심었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포도나무 같으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변질되어 들포도나무가 되었느냐?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그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신, 그들은 포이즌 오크나 포이즌 아이비와 같은 야생 덩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잘라버려야 할 잡초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는 이미지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80편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로 묘사하셨지만, 그 포도나무는 다시 그분께 불충실하게 되었습니다. 5장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표현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좋은 포도를 원하셨으나 오히려 들포도와 신폴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도 같은 이미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그들이 생산적인 포도나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칠고 부패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2장 22절과 2장 34절에서는 유다를 피투성이의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 보면 네가 잣물로 몸을 씻고 비누를 많이 쓸지라도 네 죄악이 여전히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 이니라 34절에도 네 치마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의 생명의 피가 있느니라

너희는 그들이 침입한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하다고 말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핏자국이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조사관들은 피가 있음을 나타내는 보라색 빛을 켜지 않고도 이스라엘 전체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0-15절에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내려다보시고 피 얼룩을 보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청중은 우리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항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 것과 같이 학대하고 그들의 생계를 빼앗았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흉악한 자이든지 아니든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2장 23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향을 묘사합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알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계곡에서 당신의 길을 보고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세요. 당신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불안한 어린 낙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우상 숭배라고 비난하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니다. 주님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불안한 어린 낙타와 같습니다. 단지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감각이 부족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기본적으로 당신을 짐승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24절에서는 그 이미지가 좀 더 불쾌해집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위 속에서 바람을 맡으며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녀의 정욕을 억제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더위 속에 있는 당나귀와 같습니다. 그리고 더위 속에 있는 당나귀가 자기 짝을 찾기 위해 오줌의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더위에 있는 이 신들을 쫓는 야생 동물과 같습니다.

내 말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을 그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2장 26절에 보면 그들은 현장에서 잡힌 도둑과 같습니다. 2장 26절, 도적이 잡히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들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는 행위를 하다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장 전체에서 우리가 보게 될 사람들의 말 중 하나는 우리가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신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유와 이미지는 우리에게 충돌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너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도록 돕습니다.

J. 앤드류 디어맨(J. Andrew Dearman)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 즉 그가 오랜 사역 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언약 불신앙으로 비난할 때 그들은 우리가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단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의 타락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더위 속에 있는 짐승처럼 보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노예로 묘사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마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패한 포도나무로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손에 핏자국이 묻은 범죄자나 현장에서 붙잡힌 범죄자로 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확신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2장 1절에서 3장까지 통일된 은유와 통일된 이미지는 유다가 불성실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성약을 어기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더 중요하게는 충성의 문제에서, 그분만을 숭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지 않음으로 그들은 음행을 한 불성실한 아내와 같이 되었습니다.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구약 전체에 걸쳐 갖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남편이신 하나님께 불충실한 영적 간음의 한 형태입니다. 이제 2장과 3장에는 이 결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2장으로 돌아가서 이 메시지의 시작 부분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렸을 때의 헌신과 신부로서 나를 사랑한 것과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일을 내가 기억한다.” 씨를 뿌리지 않은 땅.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와 광야를 통과하실 때 선지자는 그것이 결혼 생활의 신혼 시절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랐고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다른 부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농담하는 겁니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 사이의 광야에서의 어떤 삶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세부사항이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그 언약 아래서 살겠다고 확인하고 주님께 진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신혼여행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사실, 현재와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응한 방식은 신혼여행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봉사하던 기간에 그들이 얼마나 불충실했는지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이 완고하며 반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네 청년 시절의 헌신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신다. 이제 선지자 에스겔은 그의 책 20장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평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당신은 평생 동안 우상을 숭배해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그림의 일부로서, 신부가 남편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도 나를 사랑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늘 남편 옆에 앉았던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늘 상상한다. 그들은 멀어지고 멀어졌지만 남편은 그녀에게 "이봐, 감동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랬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하는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구절과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이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매춘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충실했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범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그들이 성 때문에 자신을 팔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적으로 불충실하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20절, 그런데도 당신은 모든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창녀처럼 몸을 굽혔습니다. 33절에서는 조금 더 비유를 더해 사랑을 구하는 길을 얼마나 잘 지도하셨는지, 악한 여자들에게도 주의 길을 가르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아, 당신은 단순한 매춘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주님께 불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능숙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에 대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2절, 또는 3장 1절에 네가 많은 애인과 행음하였은즉 네가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단순한 불신앙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불신앙의 죄를 지었습니다.

3장 6절부터 10절, 이스라엘과 유다는 불성실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 이혼 증서를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교한 북쪽 왕국보다 더 나쁩니다.

3장 19절부터 21절, 유다는 불성실한 아들과 불성실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미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구약이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식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갖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 관계에 신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볼 때, 이스라엘이 불충실한 아내라는 생각은 단지 예레미야서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매우 두드러진 방식으로 구약의 다른 두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와 메시지와 설교에서 매우 두드러집니다. 호세아 자신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고 묘사합니다.

그는 불충실한 아내 고멜과 결혼합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그녀가 그에게 불성실한지 여부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관계는 깨집니다. 그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반영하며, 내 백성이 아닌 그에게 주어진 이름을 반영합니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결국 아내를 사랑하고 다시 데려와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16장과 에스겔 23장에서도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매우 강력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그를 대적하여 난잡하고 불성실했는지, 또 영적인 면에서 우상 숭배, 때로는 예레미야가 사용하는 충격적인 은유와 언어를 통해 당신은 마치 발정난 동물과 같습니다. 2장 33절에서는 가장 악한 여인이라도 당신의 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생생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들판에 버려진 아기와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탯줄은 잘리지 않았습니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찾으셨고, 그녀를 사랑하시고 키우셨으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선물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신부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에게 베풀던 모든 것과 그 모든 영광 중에 아름답게 하신 모든 일을 행하고도 이 여자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이용하고 그 남편이 자기에게 준 모든 것을 이용하였으니,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모든 길모퉁이에서, 자신이 광고하는 모든 높은 곳에서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내 백성과 매춘부의 차이점은 매춘부가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실제로 그들이 추구했던 연인들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매춘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녀로서 자기의 연인을 찾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심지어 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 예루살렘, 소돔을 음란하고 불성실한 세 자매로 비유할 것입니다. 그는 유다가 그 자매들보다 더 나쁘고 예루살렘이 그 어느 자매보다 더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생생한 이미지가 호세아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에스겔서 설교의 일부입니다. 2장에서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결혼 비유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미지는 무엇을 전달하며 우리는 이 이미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말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결혼이라는 비유가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혼에 대한 비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노라. 예레미야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시기 위해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인 결혼 자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에서 그 영원한 사랑의 깊이를 봅니다.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우리 남편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결혼 비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표현합니다. 제가 결혼식을 할 때마다 제가 즐겨 읽는 구절 중 하나가 솔로몬의 노래 8장 7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가 사랑과 결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아름다움에 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래 8장 7절에는 부부애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물이라도 사랑은 꺼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홍수로 인해 익사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사랑을 위해 바쳤다면, 그 사람은 그 때문에 완전히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커플들에게 제가 결혼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그러한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부나 소유물보다 당신에게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런 종류의 사랑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부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부부로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부간의 사랑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나 그리스도와 결혼하시는 것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케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기시켜 주는 것은 이스라엘 언약에 나오는 결혼 은유가 우리에게 언약 관계의 배타성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시는 언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나 다른 누군가가 그 관계에 들어올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3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과 경쟁자로서 경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혼 비유는 관계의 배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학생들에게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신혼여행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독점적으로 헌신하고,

남편에게, 신부에게 바치고, 당신이 맺은 새로운 관계를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관계는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주님과 그의 관계를 버리지 않습니다.
혼합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들은 다른 신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봐, 우리의 기지가 모두 덮여 있는지 확인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분께만 헌신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부다처제가 구약에서
현실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용인하시고
참으시고 규제하시는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육체로 결합되고 그 관계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인간 수준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삶에서 주님을 대신할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중 그와
경쟁하거나 경쟁자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언약 불순종 중에서
우상 숭배의 죄가 가장 심각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성과 불충의 죄가
이러한 다른 죄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결혼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독점성입니다.

셋째,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결혼에 대한 비유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남편인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제 우리 문화의 결혼과 구약 시대의
결혼은 상당히 다릅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맺는 평등주의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아내가 거의 모든 면에서 남편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문화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반드시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 생활에서 권리와 특권을 가졌습니다. 결혼의 그 특별한 측면이 반드시 성경에 의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비유한 것은 그 특정한 문화에서 어떤 의미에서 불평등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내가 남편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넷째, 결혼에 대한 비유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과 수치심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그래픽 이미지의 일부입니다. 선지자는 왜 그들을 더위 속에 있는 동물과 같다고 비난했을까요? 선지자는 왜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을까요? 당신은 도시의 모든 나무 아래와 모든 높은 곳에서 다리를 벌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목사로서 교회에 들어가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들은 이 사람들이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도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 특별하고 신성한 관계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 분노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배반당한 남편의 슬픔도 함께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과 함께 보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결혼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상황이 어떻든, 아무리 많이 그 신뢰를 깨뜨렸을 때라는 것을 압니다. 서로 사랑하거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인생의 다른 어떤 경험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매춘부라는 개념은 죄가 단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행한 일, 그의 파트너가 그에게 행한 일로 인해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십니다. 호세아 2장 5-7절을 읽고 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좋은 선물, 곧 땅과 포도주와 곡식과 그 모든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선물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인 바알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했는지 보십시오.

이제 남편으로서 그것은 마치 내가 아내를 저녁 식사에 데리고 나가서 장미를 사주고, 아내가 옆집 이웃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그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청중에 있었고 그 메시지를 들었던 모든 남편들이 주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여성들은 매춘부라는 꼬리표에 부여되는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화권의 여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남편이 그렇듯, 그들은 주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을 내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의 모든 남편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불충실한 음탕한 여자의 자리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간음, 매춘, 난잡함의 개념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이미지와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신들을 숭배할 때의 우상 숭배에는 종종 성적 부도덕과 난잡함을 수반하는 다산 의식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예배의 일부가 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세우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숭배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다산 의식, 이러한 변태가 작용했습니다. 매춘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유다가 모든 푸른 언덕, 산당에서 이교 신들을 숭배하면서 성적 부도덕을 범하고 있었던 일을 문자 그대로 매우 효과적으로 의미합니다.

결혼 비유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다섯 번째 사실은 주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내리실 심판의 엄중함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2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뜻대로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13:22,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백성을 향하여 터질 것이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이해할 때 그분의 반응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상한 마음,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구체적인 방법은 그들이 행한 일과 그들이 범한 죄에 비추어 볼 때 절대적으로 정당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남편들은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구약과 구약의 율법, 그리고 고대 근동의 율법에서 간음은 종종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반면에 남편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 체벌로 아내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성실한 아내로, 하나님은 배반당하고 화난 남편으로, 그 결과 하나님은 분노로 반응하시는 은유와 이미지가 이 책의 시작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 전체를 통해 저절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서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문화와 상황에서는 이 구절을 읽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바람에 밀려가는 거 같이 흠으리로다 이것이 당신의 몫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준 몫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를 잊고 거짓을 믿었음이니라

이 경우 주님은 배반당한 남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가 친히 네 치마를 네 얼굴 위로 올리리니 네 수치가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가증한 일과 간음과 이름과 산과 들에서 행음하는 너희 음란함을 보았노라

옛 예루살렘아,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가 깨끗해지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래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의 간음을 처벌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들을 공공장소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는 자기 아내의 옷을 벗겨서 모든 사람이 그 부끄러움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문화와 맥락에서 이 글을 읽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이 세션을 가르치면서 나는 우리 문화에 있는 배우자 학대 문제에 비추어 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민감해야 합니다.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종종 그 부분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졌고, 다시 말하지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13장, 에스겔 16장, 에스겔 23장, 그리고 나훔서와 같은 구절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습니다. 나훔서는 니스웨 성이 주님께서 벌거벗고 벌하실 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포르노 예언적 언어, 즉 거기에 있는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신성한 강간범으로 분류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범죄자입니다. 그는 폭력적인 남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학대하는 여성 문제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는 방법과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고대 근동 문화,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시간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여성에 대한 육체적인 처벌, 때로는 사형까지 자행되던 당시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언어가 은유적이라는 사실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때때로 이 구절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반응과 반응에서 그들이 그 생각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는 확실히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되찾는 것이 여기서 우리의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의 임무가 그 은유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내를 벌하실 남편으로 묘사하는 맥락에서 우리는 애초에 예레미야가 이것을 표현한 목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매우 생생하고, 끔찍하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형벌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목적은 유다를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들도 여성을 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 땅을 침략하려고 할 때, 여자들은 자녀를 빼앗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잃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강간을 당하고 신체적 학대를 당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적과 결혼하기 위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은유는 심판이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말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반응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심판이 가능한 한 끔찍해 보이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이 경고에 반응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은유적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용되는 수사학적 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다른 부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억압받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억압받고, 학대받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생각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쫓아냈을 때 주님께서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전역에서 그것은 이상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로운 왕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5절부터 18절은 일반적인 전쟁 관행에서 이스라엘이 비전투원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21장 14절에서 18절에서 누군가가 이스라엘이 정말로 뜨거운 전쟁 포로를 잡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급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존엄하게 대우받고 남편의 애도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보는 비유는 결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거나 어떤 종류의 신체적 방법으로 그녀를 학대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쟁의 맥락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이 원수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 수준에서 이러한 심판은 결코 완전히 공의로울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셔야 할 궁극적인 정의가 있으며, 하나님은 매우 불의한 상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학대받고, 상처받고, 다치게 될 여성들과 그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비유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전달합니다. 현실과 그 판단의 공포. 신성한 진노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이 부분이 예레미야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우리 문화에는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저항의 일부는 아내에 대한 배우자 학대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저항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불순종, 불신앙과 우상 숭배, 그리고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고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자이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번 주에 매우 인기 있는 기독교 블로그를 읽고 있었는데, 그 블로그의 댓글들은 어떤 종류의 사상이라도 욕설하는 것이나 신학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칭찬하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종류의 타락을 가져오기 위해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를 제거하여 하나님을 더 큰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은유를 통해 생각나게 되는 마지막 것은 여기에서 꽤 부정적인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 당신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을 볼 때, 당신은 또한 그분의 자비와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멋대로인 아내를 벌하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녀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과 헌신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사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에는 불성실한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관한 책임 호세아서에 이러한 변함없는 헌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에서 주님은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내가 당신을 향한 나의 정의와 분노와 진노를 집행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

내 캐릭터의 정의 측면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대한 나의 진노를 다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완전히 소멸하지도, 멸망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이곳으로 갑니다. 수백 년 동안의 불성실함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까? 저에게 목사님을 찾아와 결혼을 하려는 부부들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게 만들었나요? 글썄요,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이나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해 분명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내가 내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내와 이혼하시는 현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나는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겠다.

나는 이미 그것을 썼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유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 이르러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네 어미에게 준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 홀로 과부이고 자녀도 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다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서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는 호세아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레미야 31장 22절의 한 구절로 이 수업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단지 불성실한 아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결혼 생활이 파탄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땅에 창조하셨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온갖 종류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재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때 어떤 면에서든 여자 이스라엘이 포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포용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키실 때, 그녀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충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결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2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파탄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전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결혼을 회복하시고 그의 백성을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실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8과, 예레미야서 2-3장, 결혼 비유, 하나님과 이스라엘입니다.